

## ■ 연구원 소식

- 한국고전문화학연구원에서 드리는 다섯 번째 “영상택배” 안내

### 3·1운동은 어떻게 기획되었나 - 여운형과 신한청년당

변은진 (전주대학교 HK연구교수)

지난 주 보내드린 문경득 교수의 “전라도 마이너리티의 무신년 반란”에 이어 이번 주는 전주대 변은진 교수가 진행하는 “여운형과 신한청년당”을 주제로 한 온라인 문화강좌를 보내드립니다.

연구원에서 준비한 영상택배가 물리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 ■ 역사속의 오늘

### 부끄럽지 않은 패배 - 1954. 06. 17 (한국 축구대표 첫 월드컵 출전)

한국 축구는 세계 5대 축구리그에서 많은 한국선수들이 활약하고 월드컵 본선 9회 연속 진출 기록(세계 6위)하고 있는 꽤 영향력 있는 대표팀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반세기전 축구의 변방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이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된 계기를 1954년 스위스 월드컵으로 꼽곤 한다. 한국전쟁의 포화가 멈춘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앞두고 아시아 지역에 배정된 출전권은 단 한 장이었다. 애초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이 참가하기로 되어있었지만 중국이 기권하고 한국과 일본의 맞대결로 좁혀졌다. 해방 이후 최초로 치러지는 한일전이었다.

당시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승만 정부는 일본팀의 방문을 허락하지 않았다. 예선전은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두경기를 모두 치러야만 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출국 전, 이승만 대통령에게 "일본에게 이기지 못할 경우 선수단 모두가 현해탄(대한해협)에 몸을 던지겠다."라고 하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강력한 정신력 덕분이었을까 결국 1차전 5대1 승리, 2차전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월드컵 출전권을 따냈다.

문제는 본선이 벌어지는 스위스까지 가는 길이었다. 스위스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했다. 당시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기에 정부의 적당한 지원은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본선에 진출한 16개국 가운데 유일한 아시아 국가소속이었던 한국 대표팀은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 표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서 수일간 발이 묶여 있다가, 도쿄-방콕-콜카타-로마-취리히를 거치는 일주일여의 대장정 끝에 경기 전날인 6월 16일 오후 10시에야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월드컵에 참가한 한국 대표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당시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진 헝가리였다. 당시 세계 최강의 전력이었던 헝가리 대표팀의 위상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대회 직전에 치러진 평가전에서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를 7대1로 이겼고, 강호 서독조차도 8대3으로 꺾는 등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세계 최강 헝가리와 마주한 한국은 결국 '월드컵 본선 최다 점수차'라는 기록의 희생양이 되며 9대0으로 대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참패라 불려도 손색없는 이 점수는 한국 선수들의 투혼과 정신력이 만들어 낸 부끄럽지 않은 패배였다.

헝가리의 공격을 맨몸으로 막으며 전력을 다해 땀 한국 선수들은 후반전에 4명이 다리에 쥐가 나서 경기 출전이 불가해졌고 결국 7명만 그라운드에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몰아치는 헝가리의 공격을 막아내며 엄청난 투혼을 발휘했다. (당시에는 교체선수 규정이 없어 부상으로 선수가 빠지게 되면 남은 선수들로 경기를 끝까지 치러야 했다.)

모두 100개가 넘는 헝가리의 슈팅을 막아낸 한국 대표팀에게 9대0은 오히려 기적과 같은 결과였다. 당시 골키퍼였던 홍덕영은 “헝가리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추면 골대가 흔들리며 울리는 소리가 엄청나서 내가 직접 가슴으로 맞으면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고 회상할 정도였다.

헝가리 대표팀 감독이었던 구스타보 세베슈는 “한국은 사자처럼 용감했고 쓰러져도 계속 일어나 뛰었다.”고 말했고 피파 줄리메 회장은 “지금은 한국같은 나라가 처참하게 무너졌다 하더라도 수십여 년 뒤에는 전혀 모를 일이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들의 헌사에 먼저 응답한 것은 한반도 북쪽의 나라였다. 12년 전 한국의 패배를 설욕하듯 1966년 영국 월드컵에서 8강에 진출해 세계를 경악시켰고 그렇게 쌓여진 투혼이 모여 2002년 월드컵 4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1954년 6월 17일 스위스 취리히 하르트룸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 축구 월드컵 본선 첫 경기는 비록 9대0의 대패였지만 부끄럽지 않은 패배로 기억되며 지금에 이르러 월드컵 본선 9회 연속 진출의 금자탑으로 이어지고 있다.



헝가리 전 당시 한국 대표팀(왼쪽), 망치로 축구화를 수리하고 있는 골키퍼 홍덕영

## ■ 천년 암자에 오르다

### 남해를 품은 <금오산 향일암과 백도> 일곱 번째 이야기 “남해의 꽃 백도”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백도** | 시리도록 맑고 푸른 바다에 거대한 수석처럼 떠 있는 섬이요, 신선들이 속인의 눈을 피해서 깃든 곳이다. 그래서 파도가 저처럼 시샘하다가 하얗게 속절없이 부서지리라.

이윽고 쾌속선이 긴 항해를 마치고 거문도에 입항한다. 뱃멀미로 얼굴이 노래진 사람들이 보이는데, 앞으로 백도 구경을 어떻게 할는지 참으로 걱정이 된다. 외해로 나가는 백도 유람선은 늘 파도에 시달린다. 따라서 멀미가 심한 사람들은 이 점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

바뀌 탄 유람선이 다시 물길로 나선다. 40분 정도가 지나면 드디어 백도다. 백도는 거문도에서 동쪽으로 28km쯤 떨어졌는데, 크게 상백도와 하백도로 구분된다. 총 39개의 크고 작은 무인도로 이루어졌으니, 섬마다 깎아지른 바위벽을 병풍처럼 둘러쳤다. 거센 물살을 버티며 황홀하게 몸을 세운 바위벽들은 세로로 겹겹의 골이 패여 기기묘묘한 자태를 서로 시샘한다.

한국의 비경으로 꼽히는 백도의 크고 작은 부속 섬들은 저마다 오묘한 형상이다. 상백도에는 왕관바위, 탕근대, 나룻섬, 매바위, 등대섬, 형제바위, 물개바위, 삼선암, 시루떡바위, 병풍바위, 노적섬 등이 제각각 자태를 자랑한다.

하백도에는 서방바위, 궁성바위, 원승이바위, 성모마리아상바위, 촛대바위, 거북바위, 각시바위, 쌍돛대바위, 일자바위 등이 갖가지 전설을 지니고 서 있다.

사람들이 붙인 수많은 이름을 곳곳에 달고, 백도는 푸른 바다에 거대한 수석처럼 떠 있다. 아니, 물에 잠긴 금강산이라고나 할까? 저절로 인간세계를 벗어나 선계로 든 듯, 오묘하면서도 휘황찬란한 모습이다. 관광객들은 쉴 새 없이 셔터를 누르기에 바쁘다.

멀리 낭떠러지로 솟은 두 개의 섬 사이로 영겁의 세월 동안 남편을 기다리는 각시바위가 보인다. 끊임없이 부딪치는 파도와 비바람에도 의연히 버티고 서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을 변함없이 기다리는 아낙의 형상이다. 머리에 조바위를 쓰고 치마를 넓게 펼쳤다. 한국 남자들이 흔히 그려 보는 조신하면서도 고운 자태다.

백도 안에는 천연기념물 제215호인 흑비둘기를 비롯해 가마우지, 휘파람새, 팔색조 등 물에서는 보기 힘든 30여 종의 조류와 120여 종의 희귀 동물이 서식한다. 또한 소엽풍란, 눈향나무, 원추리, 후박나무 등 363종의 아열대식물이 자생하고, 수중에는 붉은 산호를 위시해 170여 종의 해양식물이 서식한다. 백도는 섬 전체가 가히 '생태계의 보고'라고 이를 만한 천하의 절경이요, 우리나라의 커다란 자랑거리다.

전설에 따르면, 백도는 수면 위의 39봉우리와 수면 아래의 60봉우리로 이루어졌단다. 도합 99봉우리로 백百에서 하나—가 모자라기에 백도白島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섬 전체가 온통 흰빛을 돌렸으므로 백도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명이 보다 설득력 있다. 오늘날 백도 일원은 명승지 제7호로 지정되었으니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일반인들의 상륙은 철저히 금한다.

여행사에 25년이 넘게 근무하는 친구의 말을 빌리면, 자신은 지구상에 3대 비경의 하나로 백도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고 한다. 견문이 짧은 나도 결코 동조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만큼 백도는 아름답다.

그래서 영원하리라, 남쪽 나라 맑고 푸른 바다 위에 눈부시게 곱고 예쁜 백도여! 한 무리로 피어난 목련이런가, 연꽃이런가? 영원을꿈꾸는 순결의 정화精華여!

다음 주는 석탄일을 맞는 <사불산 율필암과 묘적암> 첫 번째 이야기 “산문이 열리는 날”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